홀트소식

WINTER 2023 VOL.207

홀트소식
www.holt.or.kr

겨울 이야기

"해피 뉴 이어! 2023년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팔홀트드림센터에 다니는 결연아동이 후원자님께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후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Contents

가족을 찾아주고

04 가슴으로 품은 세월,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
06 사랑의 기억으로 더 많이 행복하기를
08 홀트 한사랑회 자조모임 '해피 몽키'

가족을 지켜주고

10 짧은 발가락, 이제 아프지 않아요
12 소현이네 가족을 지켜주세요
14 엄마들의 도전하는 삶, H!–Change
16 세상을 향해 똑똑(Knock-Knock)한 엄마의 성장일기

가족이 되어주는

18 탄자니아 엄마들의 의미 있는 환원
20 이제 뽀득뽀득 손을 씻을 수 있어요!
22 내가 너의 ( )가 되어줄게
24 기댈 어른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나눔 스토리

26 49년의 세월을 함께한 어머니의 사랑
28 Happy Holt Day!
30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소개합니다

32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복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스티브 모리슨 이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7호 · 계간 **발행일** | 2023년 1월 30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가슴으로 품은 세월,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45명의 입양대기아동을 돌봐주고 계신 임정옥 위탁어머님은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기 장난감과 기저귀, 젖병 등 육아물품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민들을 응원하는 TBS 시민응원 캠페인 '우리 함께'에 출연한 임정옥 위탁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요. 말하는 법도 되어주고, 너무너무 예쁜 아기예요. 아기들이 입양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돌봐줘요. 우리 아기처럼, 내 자식처럼"

태어나자마자 황달 증상이 있었던 나희(가명)는 검사 결과 담도폐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과 비장이 섬유질화 되면서 부종이 생겨나고 있어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수술후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나희는 서혜부 탈장으로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하루 10여 가지의 약을 먹으며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나희를 돌봐온 임정옥 위탁어머님은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담도폐쇄 수술 후 건강관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으며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양분을 넣은 이유식도 만들고 나희가 좋아하는 우유, 과일도 챙겨 먹이며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위탁가정의 맞춤형 돌봄 덕분에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된 나희는 이제 집안 곳곳을 뛰어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애교도 많고 장난도 잘 치지만 위탁어머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엄마, 엄마"하고 찾는 바람에 어머님은 나희 곁을 잠시도 비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며 연신 나희 등을 쓰다듬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친생부모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 · 유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965년부터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언어발달과 신체발달,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위탁가정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vWFP-8HMA8M

사랑의 기억으로 더 많이 행복하기를

-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지원 스토리 -

합정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가까운 거리만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입양대기아동의 검사를 세브란스병원에 요청하였고 외래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입양대기아동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병원진료 시 약제비나 기본적인 외래비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발달치료 및 비급여 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은 수급비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위험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응급상황에는 훨씬 많은 금액의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더욱 원활한 협조와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2018년에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과 업무협약을, 2021년에는 어린이병원과 후원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본격적인 의료지원으로 선천성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입양대기아동을 비롯하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사례 관리하는 모든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은호선 교수님,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 박소라 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회복된 생명, 보이는 희망

세브란스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과 박시제중(博施濟衆.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은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60명의 입양대기아동들은 정밀검사와 수술, 응급진료, 재활치료, 통합발달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세브란스 사회사업실 **박소라 팀장**

소외된 환자들을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사업팀 박소라 팀장님은 치료가 필요한 아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는 일에 앞장선 세브란스는 자선과 기부로 시작되어 국민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기들이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의 기억으로 더 많이 행복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을게'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신생아과 은호선 교수님은 입양대기아동을 진료하며 건강이 점점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때, 건강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입양되기 전 마지막 진료에서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는데, 위탁모와 홀트 직원분들에게 더한 여운과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나이에 맞는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어머니, 이를 관리하는 홀트의 직원분들 덕분입니다. 아이와 동행하여 병원에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동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은호선 교수**
- 고위험 산모 태아 통합치료센터
- **진료분야** : 신생아, 미숙아 질환, 육아 지도, 고위험 신생아 추적진료

은호선 교수님은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입양대기아동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기억 못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며 좋은 입양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 너희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다오."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지원으로 입양대기아동들은 의료비 부담이나 병원 선정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한 조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사와 치료가 시급했던 입양대기아동들은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나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보호와 지원의 손길은 입양대기아동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의료진분들과 의료사회복지사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글 입양팀 이정미

홀트 한사랑회 자조모임 ‘해피 몽키’

2004년에 시작된 ‘홀트 한사랑회’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동을 만난 입양부모님들이 공개입양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의지하는 입양가족모임입니다. 매년 캠프와 송년회를 열어 전국의 홀트 입양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모교육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사랑회는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입양가족들이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띠모임, 지역모임을 자주 열어 참여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방역지침이 완화될 때마다 부지런히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양각색의 띠모임 중 2016년 붉은 원숭이띠 해에 태어난 ‘해피 몽키’를 소개합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원숭이띠 자녀를 둔 입양가족 ‘해피 몽키’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에 어색한 순간도 잠시,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양부모님들도 서로 고민을 나누며 상담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어린이 농부가 되어 밭에서 감자를 캐고 염소에게 먹이도 주며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등을 토닥이며 금세 둘도 없는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덩달아 동심으로 돌아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공식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은 부모님에게 여간 긴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입양가족에게는 특히나 그렇죠. 아이들은 각자 입양홍보대사가 되어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한 입양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들으며 입양가족들은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해피몽키’는 올해 30가정, 총 110명의 입양가족이 참석하며 95% 이상이 매우 긍정적인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공통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입양부모들의 고충사항이나 자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또래 입양자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띠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비슷한 나이, 유사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든든했던 경험을 우리 아이들도 느끼게 해 주고 싶어 시작한 띠모임은 입양부모님에게도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동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어른이 되기까지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글 입양가정지원센터장 이은정

홀트 한사랑회는 국내 공개입양가정 모임을 통해 입양아동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홀트 공개입양가족이라면 누구나 카페(holtlove.net) 가입을 통해 입양교육, 자조모임 등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짧은 발가락, 이제 아프지 않아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 지원비, 교육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90가정이 긴급지원을 받아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중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3살 지수(가명)는 선천적으로 네 번째 발가락이 유독 짧은 단지증을 앓았습니다. 발 모양 기형으로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평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도 영향을 받아 수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고등학생부터 7살 유치원생까지 총 5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수의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중족골 절골술 및 외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이 무사히 잘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Before

After

염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곁에서 부축을 해줘야 했던 지수는 이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취약계층 아동이 소중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정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지수의 병원비까지
더해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홀트아동복지회와 사업담당자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수는 수술한 발가락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발가락 상처 염증 또한
좋아져 건강히 퇴원하였습니다.
지수가 받았던 희망과 사랑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 엄마 드림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 취약계층(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일용직 등), 장애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매월 대상자를 모집, 서류심사와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생계비/주거비/의료비/심리지원비/교육비 총 5개 항목 중 최대 5개 항목(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內 참여신청 페이지(love.holt.or.kr/joi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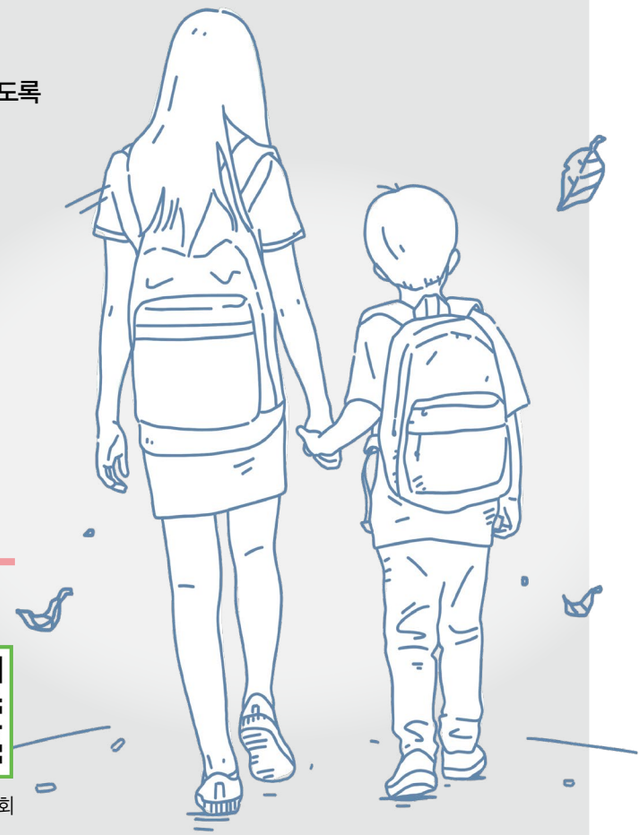
소현이네 가족을 지켜주세요

16살 소현(가명)이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까지 네 식구입니다.
빠듯한 살림에 부모님 모두 일하셨지만, 생활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아버지는 2019년에 발견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 실직하였고,
이후 스트레스가 심해져 급성 담낭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동생은 언어발달 지연으로 3살 때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6살 때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성 부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재학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고칼슘뇨증도 앓고 있어 치료와 추적 관찰을 해야 하지만
쌓여가는 부채 부담으로 모든 치료를 멈췄습니다.

유일한 가장인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얻은 소득은
LH 매입임대 주택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다시 대출에 의지하는 악순환 속에서
아빠의 병간호와 생활의 버거움으로 엄마는 점점 지쳐갑니다.
미안한 마음에 자책하는 아버지와 절망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소현이의 불안감도 커집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소현이는
모범상과 표창장도 여러 개 수상한 모범생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계속된 위기로 밝았던 소현이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현이네 가족이 이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패션잡지 편집장이라는 꿈을
가진 소현이가 꿈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위기지원캠페인을 통해 모인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소현이네 가족을 포함한 위기가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H! Change
엄마들의 도전하는 삶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HOLT공유공방 '가치만듦'에서 맛있는 빵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베이킹 정규클래스 때문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현대홈쇼핑의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 'H!-Change'를 통해 5천만 원을 후원받아 분야별 정규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가죽공예, 수공예분야 각각 기초반/심화반/마스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한부모는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회기를 수료한 한부모에게는 가치만듦 강사자격을 부여하여 강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돕습니다.

베이킹 정규클래스 기초반에 참여하며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한부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빵 굽는 엄마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베이킹에 관심 있던 한부모들이 기초반 수업을 듣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가치만듦에 모였습니다. 4회기로 이뤄진 기초반은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생크림 카스테라, 솔티트 카라멜 파운드, 레몬마들렌, 버터쿠키 등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를 만들며 제빵기술을 배웠습니다. 재료 소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머랭을 만들며 더 맛있고, 보기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빵을 만들기 전, 강사님에게 각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베이킹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했을 때보다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제과제빵을 따로 전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돌보며 강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심화반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력을 더 키워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성공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 자조모임

기초반에 참여한 한부모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우녹스코리아 이정아 지사장님은 '경쟁사회에서 창업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한부모의 자립의지를 높였습니다. 이정아 지사장님은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것'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개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조모임을 통해 한부모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온전한 자립에 힘이 되어준 현대홈쇼핑을 비롯하여 베이킹 정규클래스 강의를 진행한 우녹스코리아, 오븐엔조이와 재료를 지원해준 이탈리아 디저트브랜드 밥비(BABBI)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천세은

가치만듦

HOLT공유공방 가치만듦

- **공방위치**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길 22 B1
- **이용대상** : - 전문장비와 도구가 필요한 한부모
  - 클래스 진행공간 또는 작업공간이 필요한 한부모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신청 → 예약신청 확인 → 센터 승인 → 확인 후 이용
- **홈페이지** : holtatelier.holt.or.kr
- **문의전화** :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1~7083

세상을 향한 발걸음 똑똑(Knock-Knock)한 엄마의 성장일기

'똑똑(Knock-Knock)한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의 문을 향해 똑똑 두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훈련지원사업입니다. 학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뿐만 아니라, 엄마가 교육을 받는 동안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아이돌봄비까지 1인당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 18명을 시작으로 현재 50명의 미혼한부모가 프리저브드 플라워, 마크라메, 필라테스 등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배우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우연히 접한 아로마테라피 수업은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향초를 납품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점차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냐!' 정신이 번쩍 났고 향초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향초와 관련된 교육비와 재료비는 너무 비쌌고,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걱정할 때쯤 '똑똑한 엄마'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청하여 선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우고 싶었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향초에 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었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상품 판매로 정기적인 수입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하는 맘스페스타 플리마켓에 제 브랜드 '데이지센트'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똑똑한 엄마로서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 참가자 : 노OO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평소 반영구 화장에 관심이 많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똑똑한 엄마'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며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아이를 더욱 건강하게 양육하는 엄마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가자 : 임OO

아로마테라피 강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대면강의가 없어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찾아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아 '똑똑한 엄마'를 통해 필라테스 지도자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가자 : 임OO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탄자니아 엄마들의 의미 있는 환원

홀트아동복지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탄자니아 여성한부모 25명에게 창업 기술교육, 사업관리방법 등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본금을 소액 대출해주고, 여성계 모임을 형성하는 등 경제적·정서적인 지지를 도왔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탄자니아 엄마들은 음식판매업, 의류판매업, 잡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인 사업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곧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소득은 30% 이상 향상했고, 저축금액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엄마들이 열심히 상환한 대출금(한화 약 160만 원)이 더욱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탄자니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상환액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 체육용품 기증식

체육 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탄자니아는 공교육 체육수업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상환금으로 공립초등학교 두 곳에 신규 체육 물품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법을 배울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더욱 재밌고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엄마들의 의미 있는 기부활동은 현지 지역 주민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현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탄자니아 엄마는 “자립지원사업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이끌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상환한 금액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하고, 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성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자립과 함께 기부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은 엄마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TANZANIA

South Korean charity organization keen on supporting sports

◀ 현지 영문 신문

이제 뽀득뽀득 손을 씻을 수 있어요!

▲ 수돗가 설치 과정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트라피앙 안찬 지역에는 센터 아동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매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는 수돗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물 저장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빈곤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화장실이 단 한 개뿐이라 손을 닦으려면 전교생이 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위생을 위해 자주 손을 씻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줄을 기다리느라 수업시간에 늦기도 했죠.

기본적인 위생관리인 손 씻기조차 편히 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 아동을 위해 홀트드림센터는 봉사단체 '천사네트워크'의 후원을 받아 각 학교에 수돗가와 물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교생과 교사들의 기대 속에 마침내 수돗가가 완공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처럼 너무나 사소한 행동도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내가 너의 ( )가 되어줄게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6.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빈곤율은 10.6%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결연후원 캠페인 '내가 너의 ( )가 되어줄게'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길 원하는 후원자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어떤 동네에 살아도 어떤 꿈을 꾸어도 모두 우리 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하는 아동결연 '허브(herb&hub)'는 저소득가정아동/입양대기아동/미혼한부모가정아동/장애아동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허브 졸업생 이야기

"저에게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며 따듯한 말을 건네주셨던 후원자님! 후원자님께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움 주신 후원자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번 돈을 남을 위해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학고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원자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허브 후원자 이야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작은 도움일지라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에 큰 변화를 선물하고 싶어 결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후원자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14년동안 홀트아동복지회 입양대기아동을 돌보며 가정위탁활동을 하고 계신 유이 어머님. 어머님은 양육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한 장애 아동도 자발적으로 맡아 키워주셨습니다. 자장자장 아기가 잘 자도록 옆을 지키며 뜨개질하다 보니 어느새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한 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한 땀,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한 땀…

위탁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뜨개 수세미'를 결연후원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결연안내서, 후원가이드가 담긴 웰컴팩, 결연아동카드와 함께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김호인

◀ 참여선물

향기나는 결연
허브

기댈 어른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툭 털어놓고 이야기 나눠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그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잠시나마 기댈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 거예요. 자립준비청년들은 홀로 자립을 시작하며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기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홀트아동복지회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기에는 아직 어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자는 취지로 '기댈 어른의 빈자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꺼낸 마음속 이야기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입소하고 스무 살 되자마자 퇴소했어요.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사기당한 것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불쌍했어요. 내 주변에 진짜 어른이 없구나,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그때 과연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이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

"보이스피싱을 당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해 2억 원 넘는 피해금액이 생겼어요. 제 인생이고 제 잘못이니까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너무나 큰 피해를 담담하게 털어놓는 진혁(가명)씨의 모습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거액의 금융사기를 당하고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오랜 백혈병 투병생활 이후 찾아온 부작용으로 식도 절제 수술을 받아 몸무게가 35kg밖에 되지 않았던 지윤(가명)씨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아플 때, 무기력하게 집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기쁠 때에도 이야기 나눌 어른이 필요해요"라며 그간 힘들었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을 떠나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600명.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줄 '어른'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른의 빈자리는 저희가 채우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생계비 지원, 취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든든한 어른과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멘토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덧 5년째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성아, 김하윤 멘토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집을 구하는 데 함께하고, 대학 입학 전형을 같이 찾아보고, 입원했다는 소식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병원으로 뛰어가는 등 많은 영역에서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 "아이들의 곁에 어른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죠.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이들의 곁에는 없어요." – 김하윤 멘토

>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자기 어린 나이에 독립한다고 생각하면,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막막할 거에요.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일이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 이성아 멘토

여러분이 함께 채워주세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니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셜커머스 'TMON'은 홀트아동복지회 윤택 홍보대사와 함께 따뜻한 난방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열어주었고, '한겨레'에서는 정기후원자의 이름으로 전자레인지 23대를 기부하는 이벤트로 도움의 손길을 더해주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 많아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을 곁에서 돕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어려움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대신 자립준비청년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현주

49년의 세월을 함께한 어머니의 사랑

1973년부터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회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약 250명의 회원이 자선바자회, 일일찻집 등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관 창립 67년의 역사 중 무려 49년을 함께하며 젊은 주부였던 후원회원님들은 이제 손주의 재롱을 보는 70~80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홀트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한 봉사와 후원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과 홀트의 진정성 있는 사업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 옥션행사

▲ 자립준비청년지원 바자회

▲ 정관희, 이가영 위원 탑리더스 위촉식

매년 전국 각지에서 수련회를 열어 후원회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코로나19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포항에서 열린 전국후원회 수련회는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포항후원회 주최, 포항시청의 협력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13개 후원회 140여 명이 참석하여 후원회별 모금사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패브릭 디자인 전문 브랜드 kitty bunny ponny 진진인터네셔널(주), 에스더포뮬러(주), 각 후원회의 물품 후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JH아트갤러리 정정희 서양화가의 '가을날, 해바라기', 푸른하늘마눌공방 전통바느질공예가 오정민 작가의 '경대', '벼루' 총 3점의 작품 후원으로 포항시 태풍 침수피해 아동을 위한 옥션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아동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홀트아동복지회와 포항지역 아동을 지원해준 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기념식에서 홀트는 정효례 광주후원회장, 김점식 대구후원회장, 김진선 포항후원회장, 유도이 다문화강원후원회장 총 다섯 분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각각 10년, 20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하신 김문억 달구벌후원회장, 나명자 경기후원회장 두 분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EN장학회 이사장으로 평소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장학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부산후원회 정관희 위원과 주식회사 CNA대표이사인 이가영 회원은 홀트아동복지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탑리더스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랜시간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가 되어준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회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혜란

▲ 포항후원회

Happy Holt Day!

홀트아동복지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기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에 참여하는 분들인데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후원자 소모임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매월 색다른 주제로 진행된 해피홀트데이지만, 오랜만에 열린 대면 행사인 만큼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HOLT 공유공방 '가치만듦'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이죠. 10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한 해피홀트데이 현장을 소개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10월,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핼로윈 케이크팝 만들기, 가을 피부를 지켜줄 피테라 에센스와 로즈크림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14명의 후원자님은 각자 원하는 클래스에 참여하며 한부모 강사님과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구겔호프 케이크 만들기, 아로마 샤쉐와 향초 만들기, 가죽카드지갑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부모 강사님들도 후원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무척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후원자 이야기

"원데이클래스 시작하기 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월 내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부모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유공방은 처음 방문했는데, 한부모 강사님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전에 해피홀트데이에 함께 참여했던 후원자를 이번에 다시 만나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소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하여 더욱 반갑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해피홀트데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 구민지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소개합니다

CCM가수 박 요 한

현 프렌즈교회 담임목사

수상
제1회 대한민국 CCM 어워드 7대 가수상
제3회 대한민국 CCM 어워드 대상

대표곡
기대,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소명자,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나의 자랑

방송
CMS 새롭게 하소서, TV 성서학당
CTS, 극동방송 라디오

공연
국내외 교회와 선교단체 대상 3,000회 이상

저서
요한의 고백

코로나19로 예배가 잠시 멈추었던 시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교회를 찾기 쉽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예배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가치 아래 이웃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홀트 홍보대사이자 CCM 가수인 박요한 목사와 같이걸어가기팀(염평안, 조찬미, 임성규)의 특별한 간증으로 가족사랑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는 찬양 간증 집회로, 콘서트 형식의 나눔예배입니다. 회복을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글 나눔지원팀 김지민

홀트愛가족
OOO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고 후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가족사랑예배를 초청하시면

- 홀트愛가족 현판을 드립니다.(300mmx200mm 벽걸이 타입 현판)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실립니다.
-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행사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아닌 교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나눔기획팀 02-331-7146

◀ 예배소개 영상보기

본부

새음학교, 위기가정 위해 후원금 전달

7학년 막무가내 대장부 16기 학생 32명은 지리산 거림에서 천왕봉까지 약 18km를 완주하는 조건으로 주변 친구, 가족, 이웃에게 모금을 약속받고 종주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무사히 완주한 학생들 모두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수 영탁, 2022년 아이돌차트 기부스타 1위

영탁의 팬들은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매월 빠짐없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차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약 970여만 원으로, 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퍼 이영지, 유튜브 채널 굿즈 수익금 후원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을 통해 발생한 굿즈 수익금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10월 30일, 영상을 통해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결과를 공개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래퍼 조광일, 데뷔 3주년 기념 '특별한 후원'

조광일 래퍼와 팬클럽 '조광일 서포터즈팀'은 데뷔 3주년(10월 29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팬클럽의 기부금과 같은 금액을 조광일 래퍼가 후원하여 두 배의 사랑이 전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광일 래퍼는 데뷔 이후 매년 우리회에 꾸준히 후원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쳐 온 아티스트로,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팬클럽과 함께 실천할 수 있어서 더 큰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푸드올로지, 미혼한부모가정 이유식 지원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는 미혼한부모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와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4명의 아동에게 2023년 3월부터 6개월간 이유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자선 달리기 대회 수익금 기부

10월 29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임직원 자선 달리기 대회 'Road to Give 202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메리어트 계열 17개 호텔 임직원 총 240여명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함께 걷고 달렸습니다. 대회의 수익금은 모두 위기가정아동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로 기부했습니다.

충청지부

홀트사랑나눔바자회 진행

10월 5일, 홀트대전후원회(회장 염지원)와 함께 위기가정아동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원 및 물품지원, 당일 자원봉사와 행사 참여 등 많은 분의 동참으로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정관희, 이가영 회원 탑리더스 위원 위촉

부산후원회 정관희, 이가영 회원이 홀트 고액기부자 모임인 탑리더스 61, 62번째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N장학회 이사장으로 평소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장학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정관희 위원과 주식회사 CNA대표이사인 이가영 위원은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같이 놀자, 우리!

10월 21일, 고양시문예회관에서 2022년 고양시 장애청소년 문화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시 장애청소년 8팀의 멋진 공연과 관객 장기자랑, 이한철밴드의 축하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관객의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고양장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제1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 개최

11월 12일, (재)한국기원이 후원하고 홀트강동복지관과 ㈜아름바둑이 주최한 제1회 발달장애인 아름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을 비롯하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남세움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50명의 선수가 참여해 아름바둑의 실력을 겨루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가족자원봉사단 '온기 가득! 사랑의 연탄나눔'

11월 19일, 가족자원봉사단 전체기수 36명이 모여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997년부터 '가족 사랑을 세상에 뿌리세요'라는 슬로건으로 26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저소득가정 6세대에 1,2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마음 여기서 행복

지역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사례관리프로그램 '마음여행'은 6월부터 25회기 동안 사례관리, 정신건강프로그램, 미술치료를 진행하여 11월 미술치료 작품전시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 '마음여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후원으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주민동아리 '어반스케치' 작품전시회

신도시 개발로 사라져가는 고골(하남시 지역)의 풍경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찾아주었으며 익숙한 동네와 풍경을 보며 옛 추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희망찬 건강 길잡이 희망찬 영양교육

중장년 취약계층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습관 개선을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황보미향 교수님과 함께 영양교육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철 음식재료를 활용한 노인 영양과 건강관리' 주제로 강의를 들은 100여 명의 참여자는 건강하고 품격있는 삶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며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전클로버

키자니아 직업 체험

한전KPS(주) 대외사업센터 후원을 받아 입 · 퇴소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6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기에 걸쳐 총 300명의 다문화가족과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는 남이섬 나들이, 가족 레크리에이션, 공예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으며 춘천경찰서 외사계, 강원홀트후원회, 그린식품, (사)글로벌투게더경산 등이 물품을 후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후원자님!

환경을 위해 '홀트소식 온라인 수신 전환'에 동참해 주세요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1.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하여 변경. 소식지 수신방법을 'SMS, 이메일 수신동의 ' 선택

#2. 후원자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02)331-7073~7076으로 연락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채널로 홀트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해외 빈곤아동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instagram.com/holt_welfare
blog.naver.com/sayholt
youtube.com/loveholt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해외사업후원
극빈촌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국내 · 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2022 아동권리옹호사업 「홀트, 세움」

아동의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홀트, 세움'!
올해는 아동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알리기 위해 '아동보호'를 주제로 사행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총 678건의 응모작 중 내부 심사와 최종 온라인 시민참여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50명)을 선정하였는데요. 대상 수상자 임채린(24) 씨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쓰이길 바란다며 상금 전액을 기부하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조하준(12) 군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사행시를 지어 아동권리 공모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품을 응모해준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대 상

아이야, 아름다운 세상이 너를 반기고 있다는 것을
동화 속 따스한 안식처가 너에게 꼭 생길 거라는 것을
보물 같은 네가 반짝이도록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것을
호수 같은 품으로 너를 안아줄 어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렴

최우수상

아이와 · **동**행하는 일은 · **보**석을 · **호**주머니에 소중히 챙기는 일

최우수상

아이들의 일상이 안락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생존권은 더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보호권을 통해 착취와 학대에 대한 걱정은 덜어내고(-)
보물 같은 내일을 위한 발달권으로 교육과 문화의 행복은 곱하고(x)
호기심을 채워줄 참여권으로 더 나은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 나누고(÷)

캐논코리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Canon

복합기 최초
고객만족도 2관왕!

어차피 1등은 캐논

KCSI 고객만족도
가정용 복합기 부문
6년 연속
1위

KCSI 고객만족도
사무용 복합기 부문
New
1위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K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각 산업별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 지수와
미래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

고객상담센터 : 1533-3355
https://kr.canon